

“기약없는 더부살이 언제까지...” 한숨의 세월

‘균열 사고 1년’ 달라진게 없는 광주 북구 평화맨션

105세대 임대아파트·전월세·친인척집 등서 생활 67세대 “갈 곳 없다” 위험한 건물서 여전히 거주 입주민간 재건축 갈등 속 주거대책 해법찾기 고심

광주시 북구 평화맨션 건물 지하기둥 균열사고가 일어난 지 1년 가까이 흘렀지만 입주민들의 주거대책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은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로 재입주하길 원하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중이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입주민들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등 민심마저 흉흉해지면서 주거대책에 대한 해법 찾기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입주민들 임시거처생활 여전=입주민들은 집을 떠난 지 1년여가 다 돼도록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1일 광주시와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4일 발생한 광주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건물 지하기둥 균열사고 이후 집을 떠난 세대는 모두 172세대(A동 112세대·B동 60세대) 중 105세대(269명)다. 나머지 67세대는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다.

이 아파트 A동·B동은 사고 직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철거 후 재시공) 판정을 받았다.

집을 떠난 입주민 중 42세대는 북구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도시공사 임대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으며, 나머지 67세대는 전세·월세·친인척집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입주민들의 주거대책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재건축 추진이 유일한 해법이지만 입주민들간 이견 차로 이마저도 제자리걸음을 중이다. 또 이들의 임시거처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도 문제다.

◇재건축 놓고 입주민들간 갈등=재건축 추진문제를 놓고 입주민들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추진 시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2중 주거지역으로 용적율이 220%. 현 용적율로는 172세대 이상 지을 수가 없는데, 재건축 시행·시공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성은 크게 떨어진다는데다.

이에 따라 일부 입주민들은 재건축시 자부담율을 올리더라도 당장 재건축에 나서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 쪽에선 이 주할 비용이 없어 위험한 아파트에 사는 판에 높은 자부담까지 쥐가면서까지 지금 당장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간 폭행사건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입주민 A씨는 지난 6월 19일 재건축 문제를 놓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B씨로부터 폭행당해 북부경찰에 신고했다.

평화맨션 입주민 C씨는 “임시거처 주거비용으로 지원받은 것 외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주거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8월 한 입주민 돌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입주민들이 심시일만 모아 축하해주기도 했다.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북구 평화맨션은

- 1981년 철골 콘크리트 구조 10층 2개 동 건립
- 2014년 7월 24일 ‘쿵’ 소리와 함께 건물 흔들려
- 지하 기둥 2개 균열되며 60가구 168명 긴급 대피
- 한달동안 안전진단...사용 금지 해당 E등급 판정



평화맨션 건물 지하기둥 균열사고가 난 지 1년여가 다 된 1일 광주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B동 입구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다. 입주민들은 현재 전세·월세·친인척 등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8개월간 틈새 최대 0.43mm 벌어져...구청은 “계절변화 탓”

사이 최대 0.43mm 더 벌어졌다는 얘기다.

이는 계절변화에 따른 건조수축에 의한 현상으로, 큰 변화는 아니라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또 건축물의 기울임과 수평도도 지난 8개월 간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관계자는 “안전진단상 지난해에 비해 큰 변화는 없지만 해당 건물이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 만큼 조속히 입주민들의 안전을 고려, 임시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동 건물 균열 계속해보니

광주 평화맨션 A동과 B동은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 철거 후 재시공 등급인 E 등급 판정을 받았다.

E등급을 받으면 조속한 거주민 이주와 철거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 B동은 거주민

전원(60세대·142명)이 이주를 완료한 상태지만 A동은 112세대 중 45세대(127명)만 임시거처로 자리를 옮겼다.

나머지 67세대(168명)는 생계 등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다. 이에 따라 북구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매달 두 차례에 걸쳐 건물의 균열정도, 즉 변형·변위상태를 측정 중이다. 1년여

가 다 된 A동 건물의 균열은 더 심해졌을까.

1일 광주 북구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 간 전문가관에 의뢰해 평화맨션 건축물의 균열정도와 경사도(기울음)를 측정한 결과, 건물의 균열 정도(편차)가 +0.31~+0.43mm의 범위로 측정됐다. 건축물에 발생한 균열이 지난 8개월

중국 연수 한국공무원 탄 버스 추락 광주시 공무원 1명 등 20여명 사상

역사문화탐방 중 사고 10여명 숨진 듯

중국으로 연수를 떠난 광주시 소속 공무원 등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5급 중견리더 과정)들이 탄 버스가 추락했다. 이날 사고로 버스에 탑승했던 광주시 공무원 1명을 포함, 이날 밤 9시 현재 9명이 사망하는 등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께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한국인 20여명을 태운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안시 관할 주선양(潘陽)주재 대한

민국 총영사관은 “한국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온 연수생들이 탑승한 차량이 사고를 당했다”면서 “정확한 피해 상황과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연수원 연수에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 4명(시청 3명·북구청 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용연정수사업소 A사 무관(55)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9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내 고구려·발해유적지, 백두산 및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등 역사 문화탐방 연수를 진행 중이었다. 행정자치부는 149명(연수생 143명, 지원관 6명)이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완도해경 서장 도대체 어쨌길래...

“직권남용·욕설·인권침해” 검찰에 진정서

완도해양경비안전서 직원들이 상사 막판과 갑압 행위를 참지 못하고 검찰에 진정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상사의 직권 남용, 인격 모독성 막판, 폭언 등을 참다 못한 직원들이 검찰 부서조차 모르게 수사 기관에 진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기관 검찰 기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1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으로부터 완도해경 서장인 A총경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남지청 수사는 ‘완도해경 직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된 진정서에 따른 것으로, 진정서에는 서장의 구체적 직권 남용, 인격모독성 발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18일간 이뤄진

바다수영 체력검정 과정에서 50세 넘는 직원과 여성 직원들까지 바다에 입수토록 한 A 총경의 갑압적 행위가 담겨 있다는 게 완도해경 직원들 사이에서 파다하다.

근무 시간 외에도 업무를 맡기는가 하면, 직원 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호된 훈련, 정년퇴직을 앞둔 50세 이상 직원들에 대한 고압적 자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 안팎에서는 A 총경이 ‘강한 해경’을 강조하거나 ‘해경이라면 바다를 두려워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일련의 훈련을 해온 게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A 총경은 지난 26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서해해경본부로 대기 발령됐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여중·여고 돌아다니며 상습 음란행위 30대 ‘딜미’



○...목포의 여중·여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1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목포시 A여고 뒤 담벼락에서 스마트 폰 레이저빔으로 수업 중인 여학생들의 시선을 끈 후 자위행위를 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목포 구도심 내 여학교 일대를 돌아다니며 21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

○...A씨는 범행 직후 곧장 달아났으나 주변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A씨를 상습 공인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전원주택 · 펜션 · 찻집 · 요양(병)원 · 연수원 · 식당 적합!

투자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 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정도 상승 가능
군 관광자금 유치 가능/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동업해서 운영 하실 분 환영!
- 매매 - 감정가 28억 / 시세 33억 정도
매매 22억

회사 사정상 매매 합니다.

■ 주인직매 H. 010-3605-5000

